

# 백두대간 정기 받아 통일한국 꿈나무 키운다

**함께 걸어요**  
**통일의 길** (18)  
 — 제3부 탈북민 정착 돕는 손길 —  
 ③ 백두대간수업연구회

광주에서 학교에 근무하는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88학번 교사를 중심으로 '88교육봉사연구회' 2012년 조직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자아 존중감 형성과 행복한 학교 생활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과 여러 가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융합형 활동을 운영했다. 그런 차이에 2016년 광주시 교육청에서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다. 이들은 제안이 반가웠지만 신중하게 생각했고 고민 끝에 승낙했다. 이것이 백두대간수업연구회의 시작이었다.

전남대 출신 '88교육봉사연구회' 멤버 등 참여  
 탈북학생 진로·진학 프로그램 개발...인성교육  
 "통일한국 징검다리 되도록 성공정착 도와야죠"

백두대간수업연구회는 남과 북을 이어주는 등줄기의 정기를 받고자 한반도의 상징인 백두대간으로 수업연구회 이름 지었다. 백두대간수업연구회원들은 2012년부터 시작한 88교육봉사연구회를 통한 4년간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아이들의 인성교육과 봉사활동, 창의 개발에 힘써왔다.

또한, 이들은 국어, 과학, 사회, 음악, 체육 등 각각의 다양한 과목의 교사들이 모여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전문성 있게 진행했다. 남·북한의 언어문화를 비교, 우리말 퀴즈게임, 직업탐방 프로그램, 한반도 지리적 환경교육 등 당장 진로·진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연계 지도도 펼쳐왔다.

현재 백두대간수업연구회에는 정병수 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탈북 학생들을 위해 뜻을 모아 참여하고 있다. 현재 백두대간수업연구회는 회원들이 광주에 거주하는 탈북학생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교류하고 있다.

백두대간수업연구회의 활동 목적은 ▲탈북학생들을 위한 사회적응 향상 프로그램 개발 ▲탈북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진학 진로 프로그램을 통한 적응력 기르기 ▲자존감과 책임감 형성으로 통일한국에 필요한 인재 양성 ▲봉사 참여로 나눔과 배려 이타성 기르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탈북학생 지도를 위한 기반 구축 등이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탈북학생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활동은 통일염원 텃밭교육이다.

나주시 노안면 유곡리 일대에 조성된 통일염원 텃밭에 고추, 호박, 오이, 옥수수, 토마토, 땅콩, 고구마 등을 심었다. 지난 4월부터 매주 넷째 주 토요일 텃밭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손수 땅을 파고, 작물을 심고, 물을 주며 텃밭을 일구며 땅의 소중함과 바른 인성을 배웠다.

처음 탈북학생들은 "언제까지 텃밭교육을 참여해야 돼요?"라고 묻는 등 텃밭에 대한 반응이 별로였지만 2~3차례 참여한 뒤에는 "언제 또 해요?"라고 물으며 탈북학생들은 긍정적으로 변해갔다.

통일염원국토순례 및 진로 직업캠프를 진행해 광주학생 독립기념관, 등 광주지역 역사 문화시설과 현충시설을 탐방하고 있다. 이 캠프를 통해 올바른 국토관과 나라사랑을 배운다. 국경일과 기념일에는 태극기 달기 및 사이버 퀴즈대회를 진행한다.

정병수 백두대간수업연구회 회장은 "탈북학생들을 누군가는 지도해야 하는데 보통 관리가 힘들어서 1년 하다가 포기한다"며 "지난해 교육청에서 탈북학생 지도를 제안 받았을 때 기뻐했다. 광주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통일한국에 든든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에 거주하는 탈북학생과 일반학생들이 지난 4월29일 나주시 노안면 유곡리에 위치한 텃밭에 '통일염원텃밭'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다.

<백두대간수업연구회 제공>

## 북, 세계청소년 DMZ 평화행진 참가 검토

### 23일 임진각 일대서 개최

세계청소년환경연대(대표 조너선 리)는 북한 측으로부터 오는 23일 임진각 일대에서 개최하는 '세계청소년 DMZ(비무장지대) 평화순조성·평화행진' 참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북과 외국 청소년들이 개성공단에서 평화 교류 행사를 함께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국경선·이데올로기를 넘어 전 세계인에게 평화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는 슬로건을 내건 이 행사에는 국내외 청소년·대학생과 각국 외교관 자녀 등 3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환경연대는 이번 행사와 관련해 지난달 북측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임진각 통일대교에서 여는 평화행진에 북측 청소년의 참가를 요청하고 개성공단 공원에서 '평화순조성' 행사를 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북측이 거부하거나 통일부의 방북 승인이 없으면 평화순조성 행사는 도라산 평화공원에서만 열린다.

리 대표는 "지난 10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로부터 초청에 감사하며 제안 내용을 정부에 전달해 답변을 주겠다는 연락이 왔다"며 "신원조회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속한 결정을 달라는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13일 북측에 연락을 했는데 당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금 기다려달라'고 답변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이 4번째 행사로 매년 초청 공문을 보냈어도 묵묵부답이었는데 북측이 반응을 보인 것은 처음"이라며 "특히 실시간으로 답변이 오는 등 적극적이어서 공동행사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지난 9일 백두대간수업연구회 회원들이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를 찾아 '한국 보훈의 달 나라사랑 통일염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백두대간수업연구회 제공>

## 통일염원 국토순례 및 직업·진로 캠프 실시

### 백두대간수업연구회, 24일부터 이틀간

백두대간수업연구회는 탈북학생들과 함께 '2017 통일염원 국토순례 및 직업·진로 캠프' 행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6월 24일부터 1박 2일간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탈북학생 10명과 캠프참여를 희망하는 2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한다. 이 캠프는 광주시에 임실군, 정읍시 일대에서 진행하며 통일의 염원과 나라사랑을 캠프와 연계해 행사를 펼친다. 이번 행사에는 탈북학생도 참가해 국립임실호국원 참배, 체육활동, 별자리 관측, 섬진강 뱀 방문 등의 다양한 체험과 행사로 구성됐다.

이날 열리는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저녁식사를 마친 후 캠프파이어 앞에서 진행되는 가족 장기자랑을 통해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과 가질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장기자랑이 끝난 뒤 준비한 양초에 불을 붙여 촛불의식을 진행한다. 이 촛불의식으로 서로간의 마음속 깊이 있던 속내를 얘기하고 소통하며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백두대간수업연구회는 탈북학생들을 위한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통일염원 텃밭, 국토순례,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탈북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올바른 인성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